조계종부산연합, 16회 승보공양대법회

성도재일을 맞아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조계종연합)가 '제6회 성도재일 기념 승보공양대법회'를 2017년 1월 8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신관)서 개최한다. 법회와 아울러 회장 이·취임식도 진행, 앞으로 조계종연합의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마음을 결집하는 시간을 가진다.

승보공양은 성도의 길로 안내해 주는 스님들의 공덕에 감사하고 공경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이다.

행사는 개인 공양과 승보공양(독송)으로 시작해 예불 및 비전 선포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조계종연합은 앞으로 회장 이·취임법회를 성도재일에 맞춰 진행하고 전통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3년 임기 동안 조계종연합을 이끌 심산 스님은 부산불교화합과 전법을 목표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불교에 줄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밝혔다.

심산 스님은 "매주 실무 회의에서 현 시국에 필요한 사안을 함께 연구하고 시사 문제를 비롯해 사회현상까지 대안을 제시,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 제4회 부산자원봉사대상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제4회 부산자원봉사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20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일반부 대상은 지정순(64) 씨를 비롯해 금상 박차순(72), 은상 김순금(62), 동상 문혜선(62) 씨가 받았다. 학생부는 대상 정영빈(부산진여고 2학년), 금상 문경원(부산예술고 1학년), 은상 왕수하(주감중 3학년), 동상 김나윤(성지고 2학년)이 수상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인 지정순 씨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총 2645회 1만46시간 동안 봉사에 전념해왔다. 호스피스, 목욕, 병간호, 식사 지원 등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쳐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하성미 기자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제4회 부산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12월 20일 부산일보사에서 개최했다.

친구와 춤·노래하니 스트레스 '훨훨'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 한마당 '창립 기념 예술제'



부산 파라미타가 창립 20년을 맞아 12월 17일 부산정보고 강당에서 예술제를 개최했다.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요즘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춤과 노래, 연극, 사물놀이 등 예술무대에 푹 빠졌다. 잦은 실수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서로 뜨거운 함성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다. 부산 파라미타가 20주년 기념해 연 청소년 예술제에서다.

부산 파라미타(협회장 백명숙)는 12월 17일 부산정보고 강당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예술제를 개최했다. 청소년에게 참된 행복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꿈을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예술제는 1부 개회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식에서는 백명숙 부산 파라미타 협회장의 인사말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심산 스님의 축사, 부총재 범수 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백명숙 부산 파라미타 협회장은 20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백 협회장은 "파라미타가 창립된 지 20년이다.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성년을 의미한다. 청소년들도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 파라미타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며 "역대 총재 스님들과 부총재 스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12월 17일 20주년 기념해
파라미타 청소년 예술제 개최
연극·사물놀이 등 무대 펼쳐
자전거·경품 선물도 마련

심산 스님은 "부산 파라미타는 중앙본부와 창립년도를 같이하고 청소년의 문화 활동 교육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10년 가까이 전국 청소년 합창제를 열어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모든 활동의 저력은 총재 스님과 임직원의 공덕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 파라미타의 20년 활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준 공로에 감사하며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이욱태·하갑봉·배한욱·김재근·최낙현·김진화 역대 사무처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2부 예술제는 부산 정보고 음악밴드 '레디메이드'의 무대로 문을 열어 학산 여중의 치어리딩, 금정중 해오름 극단의 연극 별주부전, 해동중 해동공자의 사물놀이 등 9개 팀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 중간에는 부총재 스님들이 직접 후원한 자전거와 경품을 학생들에게 이벤트로 선물하기도 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이번 예술제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결과보단 과정서 더 큰 배움을 얻었단 후문이다.

이지은(성심보건고2) 학생은 "3주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즐거웠다. 특히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취미도 함께할 수 있고 에너지도 발산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오늘 무대서 우리가 연습한 춤을 보여주고 서로를 격려하니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운문사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 신이산

12월 15일 시상식 대상 상금 2000만원



운문사(주지 진광)는 12월 15일 경내 선열당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문학을 통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제정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운문사(주지 진광)는 12월 15일 경내 선열당서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남지심 법계문학상 운영위원장, 장영우 동국대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광 스님은 "법계문학상은 운문사 회주 법계 명성 스님의 포교 원력을 계승, 우수한 불교문학 작가를 양성하고 문학작품을 통한 문서 포교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제1회 대상 수상의 영예는 장편소설 '푼다리카'의 신이산 작가에게 돌아갔다. 소설 푼다리카는 청각 장애를 안고 절에서 자란 주인공이 불화를 배우며 '아미타내영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신이산 수상자는 "독자에게 감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써서 문서포교 원력을 세우신 명성 스님의 뜻에 보답할 것"이라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김민혁 작가의 장편소설 '49일'과 엄현주 작가의 장편동화 '산을 품은 아이들'은 각각 가작으로 선정됐다. 엄현주 씨는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을 열심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상은 2,000만원, 가장 수상자는 500만원 상금을 받았다.

장영우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은 "'만해문학상'은 문학계에서 중진 원로에 해당하는 문학으로, 많은 업적을 쌓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면,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계문학상은 불교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신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설명했다.

운문사 회주이자 법계문학상 이사장 명성 스님은 "포교는 등단 법문을 통한 포교, 음악·미술 등을 통한 포교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서포교는 시간을 초월한 영구적인 포교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회 법계문학상 당선작은 내년 봄 책으로 출간돼 일반 독자들도 만나볼 수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해영사, "자비 나눔 사찰로…" 천명

고아원 미애원에 장학금 전달



부산 해운대에 새롭게 불사 중인 천태종 해영사(주지 무원)가 12월 17일 불사 현장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미애원에 장학금 35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미애원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1953년 9월에 세워졌다. 창립 당시부터 수백 명 고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미애원은 2009년 철도청 조사 결과 미애원 부지가 국유지로 밝혀지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철도청은 무단으로 점유한 미애원에 변상금과 연체료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미애원 건물을 압류한 상황이다.

미애원 소식을 들은 주지 무원 스님은 지난 9월 8일 사회복지법인 미애원(대표이사 한희수)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주지 무원 스님은 신도들에게 "불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사는 바로 인재 불사다.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며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해영사는 2017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를 봉행중이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10대 종정 성관 스님 15주기 추모재

12월 15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스님의 15주기 추모재가 12월 15일 해인사 대적광전서 열렸다.〈사진〉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적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성관 스님의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는 육성법문이 진행됐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서 출생해 17세에 일본으로 유학,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된 바 있다. 법납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 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대성사, 서문시장 조속복구 기원법회

피해 신도에 복구성금 전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가 11월 30일 큰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성사는 12월 18일 일요정기법회를 맞아 경내 서원당 3층 법당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신도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서문시장 화재상가 조속복구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대성사는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 입은 신도 15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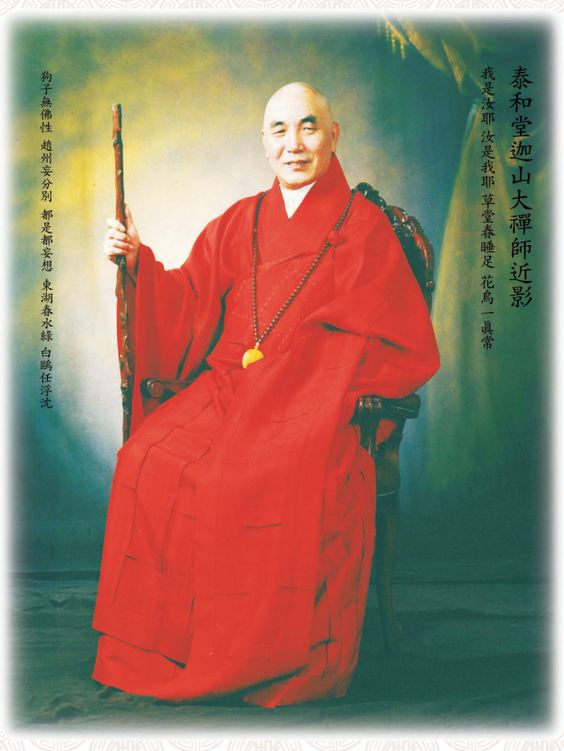
문성 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마주보고 웃어야한다. 탐욕을 버리고, 오계를 지키며 아픈 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공덕을 지어가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 법을 생활서 실천하는 길"이라며 "꿈과 희망, 용기를 잃지 않는 천태불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산 스님은 시장서 피해당한 신도들에게 "꿈과 신념을 버리지 말고 건강한 신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염원하며, 건전한 천태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성사는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재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석가산 대장로 경전결집 대작불사 발원

(화엄경 원만회향 신년하례회)

세계 최초로 석가산 대장로께서 경전결집의 대원을 발하고 무문관 묵언 대방광불화엄경 나무아미타불 화엄성중 칭념, 1자 1배로 제 1차 원융결사 345일에 대방광불화엄경사경을 乙亥年에 원만히 회향하셨습니다. 사경 중에는 수 없는 마장을 극복하시고 또 부사의한 기적과 상서로움이 나타나는 무량의 공덕장이었으며, 매 권마다 회향게와 발원문을 남기십니다. 금번 가산문도회에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용맹정진하시는 큰스님의 수행을 추앙하고자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214일 58권 회향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제방의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게 고하오니 경전 결집 대작불사의 인연에 일조하시어 복혜가 충만하시길 앙망합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두타산 호국원융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황골길 74-29)
■ 문 의 : ☎ 043)532-1875
■ 주 최 : 대각교단 ■ 주 관 : 가산문도회

가산문도회 회장 석운암 합장